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 社說

### "하이킹"과 公德

一

年來 朝鮮의 靑年男女들도 漸次 뛰고 올으기를 조하하야 山에 올르고 물에 노는 習慣이 流行케되고 잇거니와 요사이는 더구나 季節이 正히 仲秋요 日氣도 한 맑고 개인까닭에 大都會의 四郊에는 하이킹의 靑年男女들이 오고가는 形便이다.

그本來 個人個人의 한趣味요 嗜癖이요 어느點으로는 生活의 浪費와도 近似하되 한편으로는 險峻을 踏破하는데서 氣槪와 膽力을 기르고 다른한편으로 山野間에 뛰어다니는데서 身體를 鍛鍊하야 物心 어느方面에 잇서서나 有益할지언 決코 無害한 風習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大槪 郊外는 사람의 耳目이 繁多치못하고 또 住民의 知識程度도 比較的 低劣함으로써 모든點에 放心하기가 極히수워서 間或 公德에 어긋나는 行動을 忌憚업시 行하는 무리들도 업지 안한 모양이다. 이러한 무리는 하이킹의 本意를 좀더 正當히 認識시키기 爲하야도 斷然 排擊할 바일뿐이 아니라 郊外住民의 生活을 爲하야서도 어데까지 그 根絶을 도모치 안 해서는 안될것이다.

二

첫째로 사랑하는 사이거나 親한男女가 作伴하는것은 조곰도 나뿔것이 업겟지만은 猥雜한言動을 주고 바더서 보는 사람으로 하야금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 것은 맛당이 삼가야 할일이요, 둘째 氣分조케 노는그것을 구태어 干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途上에서나 車中에서나 傍若無人하게 喧囂하야 여페사람으로 하야금 厭惡의 心情을 자어내게하는 것은 용서할수업는 일이요, 셋째 主人이 잇건 업건을 不拘코 果實이나 花草를 가지채 분지르고 지르고 하는것도 재미업고, 넷째 조곰도 淸潔에 留意하지안해서 빈瓶이나 桶을 함부로 팽개치고 休紙와 腐物等屬을 아모데나 허터놋는것 재미업는 行動이다. 上記의 네가지는 오히려 모르되 심지어는 些少한 言辭間의 衝突로써 多數作黨하여 村民에게 行悖하는일도 드물지 안코 한거름 더나아가서는 그곳의 警官이나 驛員들과까지 衝突되어서 平穩한 한마을을 一時 修羅場으로 맨들어 버리는 일도 決코 업지안타.

三

하이킹을 다니는 現下의 靑年男女들中에는 種種 이러한 行動이 업지안한즉 一部의 頑固한 父兄들이 아직까지 하이킹을 一種 無賴輩의 消閑法으로 여기어 그子姪의 參加를 厭忌하는것도 오직 無條件 非難할수만은 업는것이다. 頑固한 父兄들은 且置하고 比較的 하이킹의 本意를 理解하고 그奬勵를 도모하는 우리들로서도 그네들의 그러한 行動을 團束치 못하는限 도리어 하이킹의 弊害를 絶叫치안할수업서 된다. 勿論 一魚濁水의 例도 업지안한만큼 或 一二個人의 過失을 가저 全體를 論하는것이 아니라고 反駁할는지 모르지만은 極히 好意로보아도 하이킹을 다니는 그大多數가 比較的 公德을 不注意하는것이 事實이다. 하이킹을 조하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모름지기 公德에 注意하여써 世間의 誤解를 一掃시키기에 努力지 안해서는 안 되리라고 밋는다.

# 第九戰區의 頑敵도 我進擊에 崩壞運命

## 殲滅戰은 方今最高潮

【○○二十五日發同盟】江南全線에 亘한 我軍大包圍殲滅戰은 行動開始以來 幾多의 頑敵을 무찔르고 無敵皇軍의 이름을 빗내며 通城東南方 山岳地帶에서 展開된包圍攻擊戰도 着着戰果를거두어 蔣介石이 最後로밋는 第九戰區敵陣營도 逐日皇軍將兵에게 擊破되어 蔣介石中央軍을 主力으로하는 所謂「鐵軍」을 자랑하던 第九戰區 江南一帶敵陣地도 最後崩潰의段階에 빠젓다 一方戰線西北地區追擊에서도 呼應하여決戰한 池田、佐野、門脇各山岳攻略部隊는 지난二十一日夜半 突然通城東南方陣地에 向하여 追擊을 開始하엿다 突然攻擊에 狼狽한 敵은 通城東方一帶에 배치잇는 三段의防備陣地에 依據하여 必死的 抵抗을 試하엿스나 我攻略部隊의 猛攻에 견디다못하여 各所에 多數死體를 남기고 潰走、追擊部隊의 前面에突然出現한 迂廻部隊에게 到處에서包圍되어 敵이 不落을 자랑하는 토치카陣地는 到處에서 攻略되고 一部는 血路를차자 南方山岳地帶로 潰走하고잇다 我將兵은 二十五日未明 不眠不休疲勞를 쉬새도업시 敗走하는 敵을 南으로追擊中이다

【○○廿五日發同盟】洞庭湖敵前上陸部隊一部로서 粵漢鐵道를遮斷하는 同時에 그主力은 前方멀리 敗敵을猛追中인데 二十四日午後 追擊戰에移한後 同日夜까지의 戰果는 敵遺棄死體六百 鹵獲品 機關銃二十三에達하고잇다 粵漢線東側地區를 追擊中인 岩崎、佐野、池田各部隊는 二十四日 午後七時半 新墻河南方十五키로新墻河、汨水兩河中間의 要衝○○에占據한 殘敵數百을殲滅한後 同夜徹宵攻擊前進을繼續하여 二十五日早朝 그南方五키로線에進出한 同部隊의 前進路에는 敵遺棄死體가 累累히널려떠 新墻河前渡河以來 二十四日 夕陽○○奪取까지의 敵遺棄死體 合計는 三千을不下 交戰敵兵力은 第二 第二十五 第六十 第百九十五 四個師 約三萬으로 모두 蔣介石秘藏의 直系軍인데支那側自慢의「鐵軍」도 我一擊에는 여지업시 崩壞되어 我進擊의前面汨水에向하여 潰走中이다 그리고大雲山西麓으로부터 敵陣地를 强行突破하여 南進中인 北村 山村 柴田諸部隊는 二十四日 夕陽 新墻河支流 ○○河 東方十五키로의 隘路口에서 敵約 五百을 擊滅한後 前進을 繼續 殘敵 最右翼을 迂廻進擊中인 飯塚、鷹見、藤森各部隊도 二十四日 夜間攻擊에 依하여 汨水上流一帶의 敵陣地에 逐次制壓을 加하고잇서 敵第九戰區方面殲滅戰은 方今最高潮에達하엿다

【○○에서 二十五日同盟特派員發】昨夕 粵漢線을遮斷 敵退路를 封鎖한 我金井部隊는 二十五日 午前十時三十分 强烈한 敵의 抵抗을排除하고 粵漢線東南二키로 汨水南岸 敵要衝○○에 突入하여 岳州 長沙公路를 遮斷하엿는데 이에依하여 堅牢를 자랑하던 敵第九戰區 第二陣地線인 汨水南岸陣地 一角은 쉬사리도 崩壞하엿다 一方 洞庭湖 敵前上陸의 主力인 石橋 橫田 山中 吉川各部隊는 同時

### 武寧前面敵殲滅戰

【○○前線二十五日發同盟】奉安作戰에서 赫赫한 武勳을 세운 我長河、旗生、池田以下의 ○○部隊는 突然陣鋒을돌려 今次作戰에 參戰하여 進擊을開始重要한 山岳地帶 險路를 내려 前進、○○에向하여 進擊하고잇는데 二十四日夕刻突然 奉新西北方三十四키로 地點에나타나 敵의背後를衝擊、武寧前面의 頑敵殲滅戰을開始하엿다

# 汨水河敵退却

## 渡河點附近에 舟艇集結

【○○二十五日發同盟】我空中偵察에 依하면 平湖를 中心으로 한 汨水河岸一帶의敵은 長沙方面으로부터 增援한 督戰隊에게 遮斷되어 同河岸陣地에서 反轉하려는 氣勢를보이나 一方平湖北方渡河點附近에서는 舟艇을 集結하여 支那軍一流의 所謂首尾兩端作戰으로나와이때문에 退却 增援兩部隊의兵은 混亂하여 平湖縣城一帶는 大混亂을呈하고잇다 我南下部隊 前面에잇는 敵은 我進擊을 阻止하려고 修水平湖長沙公路 通城平湖公路 岳州長沙公路等 各沿走路는 戰前부터 完全히 破壞하엿기때문에 도리어 自縄自縛에 빠저 我에게捕捉、殲滅되고잇다

### 北中支方面戰況

【上海二十五日發同盟】艦隊報道部九月二十五日午後四時發表
▲北支方面戰況
一、海軍航空部隊는 지난 二十一日、二十三日兩日에 亘하여 陸軍部隊와 緊密한 協力下에 山東省東北萊州附近에 蠢動中의 敵一千餘名에 對하여 巨彈을 集中하고 이를 擊破한 外에 龍口(山東省南部)靈城(江蘇省)及汙河海陽河(江蘇省)流域의 敵軍事施設을 猛爆하여 모두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中支方面戰況
一、二十三日 洞庭湖東岸中部의 一角에 敵前上陸을 敢行하고 鹿角附近에 據點을 確保한有力한 海軍陸戰隊는 昨二十四日 水上艦艇及 海軍航空部隊의 掩護下에 同地附近의 敵陣地에 從事하여 赫赫한戰果를 擴大中이다 그리고 上陸部隊의 進擊에 策應한水上艦艇部隊는 幾多의 困難을 무릅쓰고 鹿角附近水面의 掃海作業을 續行하엿다 夕刻까지에 處分한 機雷는 이미 約四十에 達하엿다
二、洞庭湖附近의作戰에 協力中의 海軍航空部隊는 昨二十四日午前午後에 亘하여 險惡한 天候를 무릅쓰고 全力을 擧하여 再次 鹿角及 營田 東南側方의 敵陣地에 對하여 有效的確한 爆擊을 敢行한다음 各處에서 敵密集部隊를 捕捉 果敢한 銃爆擊을 加하고 이를 殲滅 또는 潰走시키고 地上部隊의 進出을 支援하엿다
三、그리고 同日 他의航空部隊는 各各洞庭湖西方 要衝 常德附近에 山積한 軍需貨物及 同地上流河洑 郊外의 倉庫群을 爆擊 그大部를燒失시킨外에 辰州攻擊部隊는同地對岸 倉庫群을 過半을全壞시켜 莫大한 戰果를거두엇다

# 磊石山一角占領

【上海二十五日發同盟】艦隊報道部二十五日 午後六時發表 二十五日 午前十一時 海軍陸戰隊는 洞庭湖東岸 磊石山一角을 占領하엿다

### 敵有力迫擊砲陣地 完全히 潰滅

【○○前線二十五日發同盟】今日 午前七時陸軍航空隊阿久津中尉、岩崎曹長等의 ○○機는 新東方敵의 有力한 迫擊砲陣地에 巨彈을 퍼부어 完全히 潰滅하여 버렷다

### 汨水河畔山險突破

【○○基地二十五日發同盟】我陸의 荒鷲의 偵察에 依하면 二十三日 早曉洞庭湖東南岸에 上陸한 ○○部隊一部는 靑夜로强行進軍하여 二十五日朝에는 벌써岳州南方約六十粁○○附近에서 粵漢線을遮斷하고 다시午前十時에는先鋒部隊는 汨水河畔軍險한山險을 突破、또昨夕○○○○地帶에進出한 ○○部隊는 今朝再次嶮險한山岳地帶에 突入、進擊을續行

# 首相의權限强化

## 今日閣議에附議決定

【東京電話同盟】國家總動員法發動에 關하여 그迅速圓滑을 期하려고 所謂首相의 權限强化에關한 問題는 內閣三長官의 손으로 現行內閣官制에 抵觸하지안는 範圍內에서 勅令案을起案하여 그立案을 보앗스므로드디어 二十六日 定例閣議에 附議決定하기로되엿다

### 新舊外相事務引繼

【東京電話同盟】新外相 野村吉三郞大將은 二十五日午後 親任式을마치고 午後四時十五分 外務省에 初登廳하여 阿部兼攝外相과 事務引繼를하엿다 四時十分 모닝을 입은 阿部兼攝外相은 川秘書官을 데리고 外務省에나타나 二階大臣室에 들어가자 數分後에 新外相獨眼提督 野村大將은 五尺九寸의巨軀를禮服에차고 右手에 실크햇트를들고 十八代大臣을섬기는 岸老秘書官에 案內되어 처처히 大臣室에들어갓다 大臣室에面한 安樂椅子에안즌 陸海兩大將은 親密하게 約十五分間事務引繼를한다음 新舊兩外相은 가치 사이조케 新聞社의 寫眞에박혀젓다 引繼를마친 新外相은 省內高等官一同을 階下大會議室에 集合하여 一場訓示를 하고 就任人事를 하엿다

### 愛國婦人會會長에 水野女史決定

【東京電話同盟】愛國婦人會에서는 本野久子女史가 會長을 辭任한데따라 그後任을選任키 爲하여 二十五日 午後一時부터 本社에서 臨時理事會를열고 副會長 水野滿壽子女史를 會長으로 推薦、곳 東伏見宮大妃殿下의 允許를어더 正式決定하엿다 新會長 水野女史는 貴族院議員 水野鍊太郞氏의 夫人으로 當年六十四歲 그리고 副會長 後任에는 同會理事 金子다쓰子女史가 就任하엿다

### 井上大將廿七日入京

羅南在鄕軍人會 支部大會에出席한 帝國在鄕軍人會會長 井上幾太郞大將은 廿七日 午後一時五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入京、即時로 朝鮮神宮에 參拜、神宮大前廣場에서 京城府聯合分會 其他出迎의 在鄕軍人에對하여 訓示를하고 午後三時十分부터 偕行社에서 龍山聯合支部長及 京城支部長의 狀況報告를 들은後 中村軍司令官 鈴木部隊長을 訪問、同六時半부터 在京各團體主催歡迎會(朝鮮호텔에서)에 出席、廿八日은 總督訪問、李王職에 伺候할터이다

# 敵指揮官關麟徵 長沙方面에逃亡

【○○二十五日發同盟】敵第十五集團軍總指揮官인 關麟徵은 我機動部隊의 果敢한 進擊에 놀라 빠르게도 長沙方面에 逃亡한것이 二十四日汨水陣地에서 붓잡힌敵將兵의 말에 依하여 判明되엿다

# 首相外相과會見

## 外交陣營刷新을協議

【東京電話同盟】野村大將은 廿五日午後三時 外相親任式終了後 首相官邸에서 阿部首相과會見、專任外相下에施行되는 廣汎한帝國外交陣營刷新에對하여 協議할터인데 爲先 澤田次官의駐佛大使轉出에依한 後任次官에는 旣報와가치 谷正之公使를起用하려는데 廿六日 定例閣議에서 決定할터이나 駐米大使를 爲始하여 歐洲各國駐在使臣의 更迭에關하여도 兩者間에 意見交換이잇슬것으로보인다

그리고 駐米大使의後任에는破格으로 閣僚以外에서 大物을起用할方針인바 阿部首相은 松岡洋右氏가 適當하다고하는데 野村外相의사이에 意見一致를보면 急速松岡氏를駐米大使로起用할것으로보인다 이外에駐伊大使에는 現瑞西公使天羽英二氏、瑞西公使에는 栗原東亞局長或은河相情報部長、東亞局長後任에는興亞院經濟部長 日高信六郎氏或은 在北京大使館參事官 堀內干城氏가下馬評에오르고잇다

# 獨蘇勢力暗鬪로

## 발칸工作前途困難豫想

【倫敦二十四日發同盟】蘇聯軍의 波蘭進駐、카리네스코 루마니아首相暗殺事件以來 倫敦外交界의 關心은 只今발칸近東에 集中되고잇는데 二十四日의 各新聞은 獨蘇兩國이 戰略的要位를 占하는 발칸近東은 中立諸國의 關心을 끌기爲하여 暗鬪를 繼續하고잇다고 傳한다 即 부카레스트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蘇聯은 前者에獨逸의 黑海制覇를 許容치안는 旨를 保障하엿는데 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은 近近行해질사라코글 土耳其外相과의 會見에 際하여 蘇聯 루마니아 불가리아 土耳其 四國으로써 될 黑海四國協定締結을 提案하지안흘가고 보인다 이에 對하여 外交記者는 히틀러總統이 獨逸의 루마니아進出을 阻止하려는 蘇聯側의 行動에 廣心하여 이 對策으로 十月初의 獨逸 匈牙利 羅馬尼亞 유고슬라비아四個國會議를開催 此等諸國으로부터 軍需品 補給을 確保하려한다고 報道하고잇다 그러나 獨軍의 自國領內通過要求를 拒絶하엿고、또히틀러總統이 발칸協商國의反獨感情誘發을 두려워하여 要求貫徹에 武力行使를 躊躇하고잇는 實情이기때문에 발칸工作의 前途에는 아직相當한 困難이잇다고보인다

### 人事·集會

◆下村進氏 (總督府保安課長)全南道出張中 二十五日夜歸任

### 市況 (廿五日)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一六三九〇〇 先限 一五六〇〇

# 米穀需給問題로 伍堂農相朝鮮에

【東京電話同盟】中國地方의 旱害狀況視察을 마치고 二十五日朝 歸京한 伍堂農相은 二十六日 定例閣議에서 視察結果를 報告하여 應急對策을 決定할方針인데 戰時食糧確保의 見地에서 旱害에依한 米穀需給關係의逼迫에비추어 外地 特히 朝鮮의 旱害實情을 視察한後 南總督과 親히 會見 協議하고 速히 內外地를 一貫하는 米穀需給方策을 樹立할 必要가 잇기때문에 事情이 許하는限 今月末 或은 來月初 飛行機로 朝鮮으로올 豫定이다 (寫眞은 農相)

### 軍艦「鹿島」進水式擧行

【橫濱電話同盟】太平洋上에 無敵의 威容을자랑하는 帝國海軍의 新威力으로서 三菱重工業橫濱船渠에서 建造中이던軍艦「鹿島」의 進水命名式은 二十五日午後三時四十五分 至嚴하옵신 久邇宮朝融王殿下 台臨을仰하여 吉田海相、長谷川橫鎭長官等 諸員參列하여 嚴肅히 擧行되엇다

### 宗秩寮總裁가 學習院長事務取扱

【東京電話同盟】野村學習院長의 外相就任에伴한 後任에對하여는 武者小路宗秩寮總裁가 院長事務取扱으로 事務를보기로되어 二十五日宮內省으로부터 如左히發令되엇다
宗秩寮總裁 子爵 武者小路公共
學習院長事務取扱被仰付

# 蘇軍、羅國을封鎖

## 伊國、蘇態度를極注目

【羅馬二十四日發同盟】波蘭에侵入한 蘇聯軍은 羅馬尼亞國境地帶를 完全히 封鎖하엿는데 同時에蘇聯軍은 羅馬尼亞東部國境地方에도 動員되어 蘇聯軍의 羅馬尼亞進擊態度가 完了되엿다한다 이리하여、빨칸의形勢는 獨逸보다도 蘇聯勢力의 東進에依하여 威脅됨에 이르러 빨칸問題에 無關心할수업는 伊太利는 빨칸에對한 蘇聯態度 特히 蘇聯과羅馬尼亞關係가 가장注目되어 西部戰線의 戰況如何에따라서는 빨칸의危機가 곳 닥처오리라는 觀測이 有力化하여왓다

# 英、蘇政策打診

## 蘇大使에 情報提供要請

【倫敦二十四日發同盟】할리팍스外相은 二十三日夜 마이스키駐英蘇聯大使의 來訪을 求하여最近의 歐洲及 極東情勢에 關하여 長時間에亘하여 會談을하엿는데 右會談席上 할리팍스外相은 마이스키大使에 對하여 蘇聯政府의 將來政策에關한 情報를 提供하기를 要請하고 이에對하여 마이스키大使는 可及的速히 回答하겟다고 約束하엿다 이리하야 二十三日 會談에서도 英國政府는 蘇聯에對하여 特別히强硬한 態度를 보이지안코極力으로 依然英國이 對蘇宣戰을 할 形勢는 보이지안는다 政界一部에서는 英國이 萬若 公式으로 蘇聯의 對波行動은 英佛의 對獨戰과는 無關係하다고 聲明하게되면 或은 佛國이 今次大戰에 勝利를어더 波蘭再建에 着手할時 多大한 支障이生하지안흘가고 警告하고잇다

### 酒匂大使夫人一行 新京着內地로向發

【新京二十五日發同盟】獨波開戰으로 混亂한 왈쇼를 脫出한酒匂大使夫人一行十三名은 二十五日早朝六時五十三分新京에 到着하엿다 井上書記官의 長男浩君을 爲始하여、손에玩具를 가진 兒孩를 압세우고 爲先驛貴賓室에 들어 少憩한後 同八時十分發列車로 朝鮮經由內地에 向하엿다 그리고 왈쇼로부터 同行한 上田駐在武官夫人은 一行보다 조곰압서 二十四日來京하엿는데 新京에 一泊、二十六日午前六時十分發列車로 渡東하엿다

# 米航空母艦急派

## 比島카비데軍港에到着

【마닐라二十四日發同盟】比島中立强化를爲하여 布哇로부터 急派된 米海軍航空母艦 랑구레號는 二十四日 카비데軍港에 到着하엿다 그리고 十九日 하와이를 出發하여 編隊飛行으로써 比島에向한 米海軍爆擊機十五機도 二十五日正午 카비데軍港에 到着할 豫定이다 同爆擊機는 目下太平洋橫斷 航空路에 就航中인 최아나우린티號와 同型으로 爆彈搭載量 二萬五千封度、乘組員全部 百五名이다 그리고 米海軍機가 밋드웨이 以西를飛行하는것은 今回가 처음이다

### 獨陸海空軍戰況

【伯林二十五日發同盟】獨軍司令部는 二十五日 콤뮤니케로써二十四日中의 陸海空各軍 戰況에 關하여 如左히發表하엿다
一、空中戰에 잇서서 西部戰線에서는 我空軍은 佛軍飛行機 八機를 擊墜하엿다
一、東部戰線 獨蘇兩軍의 分界線方面의 軍移動은 蘇聯軍과緊密한 聯繫를가지고 아무支障업시 圓滑히 進行되고잇다 그리고 英國驅逐艦의 擊沈에關하여는그艦名、擊沈場所等詳細한 點에對하여는一切發表되지안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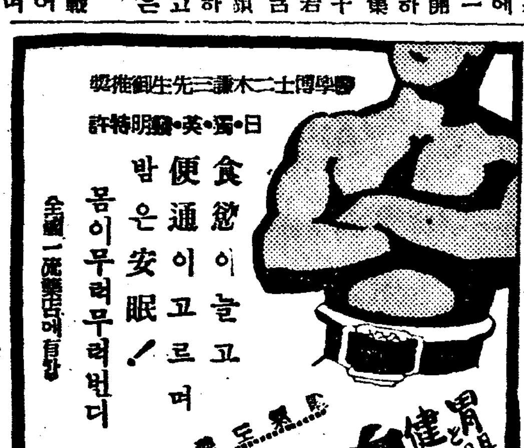
# 進擊機會眈視

## 西部戰線獨軍反擊猛烈

【巴里二十四日發同盟】佛國側情報에 依하면 二十四日西部戰線의 戰況은 다음과갓다 獨佛國境의 佛軍은 二十四日總兵力五千以上의 獨軍先遣部隊와 衝突하여 機關銃의猛射를 퍼부어 이를 擊退하엿다 朋後獨軍은 再次進擊을反復하여왓스니 我軍은 積極的으로 攻勢에 轉하여 자르브뤼켄 로테볼크間 前線約百키로에 亘하여 進擊을 開始하엿다 一方我空軍部隊는 目下前進을開始한 地上部隊의 掩護를 하고잇다 그리고 同地方에 集結된 獨逸軍은 三十個師五十萬이라고 稱하여 그中에는若干의 快速機械化部隊가 包含되어 佛軍側이 조곰이라도頭勢를 보이면 快速을 利用하여 電光石火의進擊을 하려고하고잇다 其他地方의 戰線은 同日中比較的 平穩하엿다

【伯林二十五日發同盟】波蘭作戰의 一段落으로 戰局은 드디어 西部에 移行하려고 하고잇스며 從來對波作戰終了後의 對英佛和平工作을 策動하고 잇던나치스黨幹部도 最近드디어 對英佛本格的大戰의 不可避를 깨닷게 된 模樣으로 二十四日確實한 側으로부터어든 情報에 依하면 獨軍最高司令部는 長期戰에對하고자『西部某方面』數個所에 大規模의 防空施設을整備한 軍司令部의 構築에 着手하는等 注目할 動向을 보이고잇다한다 右新司令部는 어느山中에 構築되고잇스며 如何한砲爆擊에對하여도 견딜수잇도록 堅固하게 構造되엇다고한다 軍事專門家의 意見으로는 英佛側에서는 아직戰備가 充分整頓되지못하여 來春까지는 本格的攻擊을 開始할 意思가업다하고 獨逸側에서는 이사이에잇서 各方面의 陣地構築을 完成시키려고하는意思인것갓다

廣告




# 早稻田大學講義錄

## 校外生募集

早稻田大學總長 田中博士

新日本의靑年으로서 누구나가저야할 中等智識。小學校만을卒業한諸君은只今。이야말로배워서將來의飛躍을期하라。入學者는모두早稻田大學의校外生으로 待遇하며學科의質問에答하며獨學相談에應하며 直接指導講演會等을 行하고其他모든方法을 講究하여 누구에게나學校教育에 뒤지지안는學力을엇도록 萬全의指導를함。詳細는內容見本으로 알기를바라며葉書로 申込次第누구에게나곳送呈함

中學講義 前後期各一年·月一圓
商業講義 一年半修了·學費月一圓
高等女學講義 一年半修了·學費月一圓
電氣工學豫備講義 一年半修了·學費月一圓
政治經濟講義 一ケ年修了·學費月一圓
法律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廿錢
文學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廿錢
建築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卅錢
電氣工學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卅錢

內容見本은반드시志望하는講義錄을적어서곳申込할것
東京·牛込·早稻田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二二三 電話牛込三三四五

# 太陽生命

社員招聘

本社·東京日本橋　支社·京城府黃金町二丁目

# 貞信女校讓渡回訓到着

## 李鍾萬氏引繼申請을 宣敎本部正式受諾

### 宣敎會側代表回訓을傳達、남은것은細目協定뿐

## 死線彷徨三年에 貞信蘇生

북장노교 선교회계통의 중등학교로서 오직 하나로 남어 오래동안 사선을방황하고잇던 정신(貞信)여학교는 그동안 여러갈래의 고비를지나 일직부터 학교인계를 신청중이던 대동광업(大同鑛業)사장 이종만(李鍾萬)씨에게 학교를넘겨줄 의향이잇다는 선교본부로부터의 회훈이잇서 이십이일 동교파 조선선교회를 대표하여 『쿤스』『밀러』양씨가 이종만씨를 정식으로찻고 학교인계에관한 선교회측의 의사를 전달하엿다 사선을 방황하기 삼년남아 이로써 조선여자교육계에 만흔 공적을 싸하온 역사기픈 정신여학교는 선교회측의 아량으로 이종만씨의손에의하여 완전한소생의길을 엇게될터이다 이종만씨는 작년봄 평양숭실전문이 폐교의비운을맛나게되자 이것을 바더서 그자리에 거금을던저 대동공업전문을세운이라 이번에 또새로맛게될 정신여학교의 양양한금후가 지금부터 기대되거니와 세목협정기타에대한 사소한문제가 아직남어잇기는하나 이런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방금동경(東京)에가잇는 동교설립자원한경(元漢慶)씨가 이제멋칠후에 도라오기를 기다려서 결말을짓게될터이라고한다 (사진은 소생하는 정신여학교)

### 誠意껏하렵니다

#### 引繼바들李鍾萬氏談

아직완전히 끗치나지안흔 지금 나로서 무에라고 말하기가 난처합니다 대동공전(大同工專)을 경영한다고는하나 남자교육에 못하지안케 여자교육문제도 소홀히할수가업다고 생각턴차에 정신여학교가 그처럼 선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을떼게쯤되엿다기에 적으나마 내힘으로될수만잇다면 살려보려고한것에 지나지안습니다 다행히 선교회측에서 성의로써 인계교섭에 응해주어 일이대단히순조로히 진행되는것갓습니다 남은문제가 더러잇는 모양이나 방이 다성의로써 일에당하고잇스니까 잘될줄로압니다 만히도아주십시오

(사진은 이종만씨)

### 軍事後聯寄附袋 各家庭에配付

총후부민의 적성을다하여 출정군인 상이군인과 유족의 원호사업에 매진하고잇는 경성군사후원련맹에서는 결성이래이년이개월동안에 제일회모집지금도 거이다써스므로 제이회지금 삼십오만원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를 부민일반으로부터 공모하기로되어 기부금 봉투십오만장을만들어 각정회를통하여 한집한집 빼어노치안고 전부민의가정에배부하엿다 련맹당국에서는 내달말까지에 다소를 불구하고 이봉투에너허 내달말까지 정총대에 갓다주기를 열망하고잇다

# 올르지안흔것은菓子?

## 府營公設日用品市場小賣物價指數調査

사변후 경성시내의 생활필수품갑시 얼마나비싸젓는가는 경성부조사의 부영공설일용품시장소매물가지수(指數)조사를 보아다시금 놀라지안흘수업다。팔십가지의 종류갑을보면 사변직전인 소화십이년유월의 지수일백이십(소화팔년을 백으로기준잡고)에 대하여 지난달에 일백오십팔이 던것이 이달은 다시올라 일백칠십으로 되어잇다 열네가지품종중 가장오른것은 가장필불도 십이년유월의 지수백삼칠이던것이 약갑절이나 올라 이백이십삼이상으로 되어잇고 가장오르지안흔것이 과자류로서백육(一〇六、七)이던것이일백이십사(一二四、四)로되어잇다 푸름종류가지의 평균지수가지난달의백구십오(一九五、一)이던것이 이달에는 백구십구(一九八、九)로 되어잇는것은 그동안 잡곡갑시 비싸진때문이다 사변직전에 비하여는 고기、계란、술、간장、생선、채소、파일、두부、신탄류이나 사오할내지십할까지 다올랏거니와 바로할만인 팔월보다도 모두비싸지고 오르지 안흔것은 세가지뿐으로 되어잇는것을보아도 당국의 철저한 저물가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싸지는 물가의 템포가얼마나 빠른것을 엿볼수잇다

## 各署經濟主任召集코 物價取締策協議

경기도에서는 이십오일 오후한시부터관내 각경찰서 경제주임회의를 소집하고 미곡배급통제와 물까등귀억제대책등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협의하엿다

### 土國소地方의激震

【스미루나(土耳其)二十三日發同盟】아세아 『에게』해안의 스미르나지방일대에는 이십이일밤은 일어낫래에업는 격렬한지진이 잇섯다 이때문에 죽은사람이 이백명 상한사람이 수백명이다 그리고 스미루나에서는 시내의 만흔 집이 무너지고 오전동안에 불안한사람들은 이방새깟게속하는 려진에떨고잇다

### 西尾大將에 激勵電

#### 排英同志會에서

조선배영동지회련맹에서는 이십오일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서미수조(西尾壽造)대장에게 다음과가튼 격려전보를 보냇다 지나사변처리를 위하여 철저적 배영을 희망하며 원장(援蔣)의 책원지인 조계의회수를 단행하기를 희망한다

### 異域의童心도 災地를걱정

충남조선한해이재민의 참상에 대하여 멀리 만주목단강성영안(牡丹江省寧安)현(縣)영안국민우급학교(國民優級學校)와 동성서국민학교(城西國民學校)생도들은 귀여운 동심을 움즈겨 한푼두푼용돈을 모아 아름다운 동정금 십오원오전을 이십오일본사에 기탁하여왓다

◇國民▲一學年 二圓二六錢▲二學年 一圓三八錢▲三學年 一圓七一錢▲四學年 一圓二三錢◇優級▲一學年 二圓九七錢▲二學年 三圓六〇錢

### 旱害救濟義捐

### 輔仁校生義捐

부내 보인상업전수학교(輔仁商業專修學校)와 경성보인소학교(京城輔仁小學校)교원과 생도들은 한해구제의금을모아 다음과가치 본사에기탁하여왓다

▲八圓五十錢 輔仁商業專修學校 ▲拾四圓 京城輔仁小學校

### 本社配達員一同 廿圓을義捐

본사경판(京阪)배달원 일동은 충남조선한해 이재민구제의 연금으로서 이십오일 이십원을 모두어내다

今日天氣 晴曇不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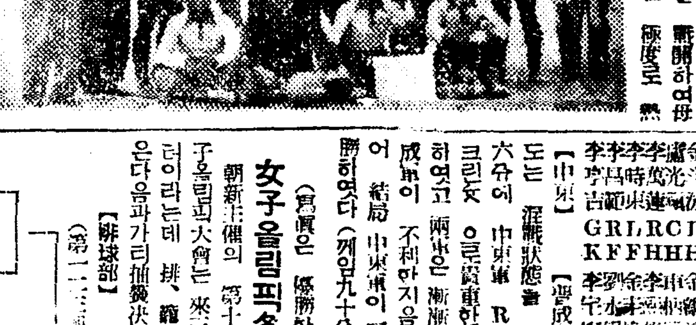
## 普成FW線不振 凱歌는中東에게

### 大豫主催中等蹴球終幕

京城帝大豫科主催 第十一回全鮮中等蹴球大會第三日、普成中學對中東學校決勝戰은 淸凉里町大學豫科運動場에서 二十五日午後三時四十四分부터 開幕되엿다 지난이틀동안에 地方에서 出戰한 强豪와 京城의 培材、徽新、第一高普를 누르고 決勝戰에 臨한兩軍은 자못 覇氣滿滿하여 劈頭부터 緊張味넘치는 激戰을 展開하여 母校應援團으로하여금 極度로 熱狂케하더니 戰勢는 中東軍에게 有利하여 一對零으로 中東軍이 制覇하엿다

【決勝戰】中東1 普成0 【前半0…0、後半1…0】

普成中學對中東學校戰은 同午後三時四十四分부터 朴義鉉(主)李斗鍵、林昶洙(線)三氏審判下에 中東軍의 킥어프로 開始되엿스며



【前半】中等戰으로서는 稀貌的巨體의鬪士로 壯觀이며 兩軍의陣容과 戰法은 다음과 같이 白熱戰을 展開하엿스며 全體로보아서 中東軍이 優勢로 리ー드하며 進行하다가 十八分에 普成軍RF 劉永鎬의 푸리끽크로困하여 中東軍 LI 張太白의 헤딩을 普成GK李宇寧 巧妙하게 防禦로 無得点 攻守陣으로 前進하는 戰勢로前半戰을 막엇다 【後半】前半에比하여서 大體로 普成軍은 意氣 沈滯하여지고 볼은 恒常 普成軍의 門前에서 混戰狀態를 早하엿고 十六分에 中東軍 RW朴鍾燮의 크린숫으로 普成軍이 한一點을 先取하엿고 兩軍은 漸漸激戰하다가 普成軍이 不利하지음 타임업이되어 結局 中東軍이 一對零으로 勝하엿다 (계임九十分間)

【普成】 GRLRCLRRCLL KFFHHHWIFIW 【中東】

計 6341 後 3220 前 3121

計 6310 後 2230 前 4180

(寫眞은 優勝한 中東軍)

### 女子올림픽各部對陣

朝新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는 來三十日에 行할터이라는데 排、籠、卓球의對陣은다음과가티抽籤決定되엇다한다

【排球部】(第一二三學年) 成二·德第 淑明·進明 女師·同德 第一·龍谷 京畿 梨花·女商

(第四五學年) 同德·進明 女師·同德 第一·龍谷 京畿 梨花·女商

【籠球部】(第一二三學年) 第二·淑明 京畿·梨花 進明·同德

(第四五學年) 淑明·女商 同德·進明 好壽·第二 培花·梨花

【卓球部】(第一二三學年) 同德·培花 第二·培花 女師·梨花 淑明·進明

(第四五學年) 淑明·好壽 女商·培花 第一·第二 向上·德成 同德

(一般部) 培花·第一 淑明·同德 遞信·中保 第二·女師

## 朴侯와甲申政變前後 ②

### 維新日本의姿態보고 革新斷行한開化黨

#### 事大黨과의血鬪도예서부터

갑신정변은 그당시의 경과만을 기록한데서는 갑신정변의 끝자를 알기힘든다 그당시의 내외정국이 어즈러웟음으로 더말할여지가업지만 갑신정변을 비저내기까지의 그전십년의 조선을 에워싼 대외관계와 궁중의 얼키고설킨 음모투성이의 핏비린냄새나는 정국의 내막이란 더말할여지가업는것이엇다 전회에도 잠간말햇지만 당시 영미국이며 불란서、로서아등이 연해 넘나드는 그가운데서 청국과 일본파의 일대결전을앞둔 세력의 전초전이란 조선의 정국에 그대로 나타나 어즈러운 정상을 여지업시 드러내노앗든것이다

◇……◇

첫재 이야기가되엿든것은 조선이 자주국이엇드냐 청국의속국이엇드냐하는것도 비참한일이엇다 인조(仁祖)이래로 조선은 청국에 조공을해왓고 청국의 연호(年號)를써오만큼 말하자면 청국세력미테잇섯든 속국이라고도 볼수잇섯스나 실제는 일체의 내외정무는 자유독단으로할수잇서 독립국가이기도햇다 그런상태에 잇섯슬때 고종(高宗)초기에 천주교도의 학살사건이며 평양대동강상에서 미국배『쇠만』호를 불사른일이라든가 인천해안에서 불란서배를 물리친일이라든가한 사건이 잇섯슬때 미국이며 불란서는 교섭의상대가 조선이냐 청국이냐 미상하고 청국에 물엇더니 문제가 시끄러웟든탓으로 청국은 조선이 자주국이라고하야 교섭의 상대됨을 피햇다 그러고 그후 강화도(江華島)에서 일본배 운양호(雲揚號)에 피해를주엇슬때에도 청국은 교섭의 상대는 조선이라고 하야 어느듯조선은 자주국으로서게 되엿다 이러고나니 일본세력이 조선에 퍼질대로 퍼지라고 청국이 그대로보고잇기에는 너머나 아쉬운모양이엇다 여기에청국과 일본의 세력의충돌은 조선에서 정면으로 버러지게된것이다。

◇……◇

이러한 정세에잇서서 량국의 세력의 분야는 조선정국에 그대로 나타낫든것이다 청국은옛날부터 소위대국이라고하여 그세력에 억눌리워 만사에 청국이 아니면 안될것가치 청국세력에 혹해빠진 사대당(事大黨)은 상하에 뿌리본대가 기펏지만 새로서양의 문물제도를수입하여 강대한 세력으로발전하고잇는 일본의 신세력에 반한 일파가 어느듯 세력을 잡게되엇다 그것이 바로강화도운양호사건이 잇슨후 강화조약의 뒷채림으로 최초의 수신사(修信使)로 김기수(金綺秀)가 갓다왓슬때 그때부터 청국의 늙고묵은 제도에만 의지할것이 아니라 참신한 일본의 신식개화에 본바더야 한다는것이 김기수일행에 따러갓든 젊은정치가들의 생각이엇다 뒷날개화당의 싹도여기에서 씨가 뿌려젓든것이다 이가치하여 사대당과 개화당의 세력의 분야는 조선에 빠치는 일본파 청국의 세력이 커감에 따라 알륵과 질시가 숙명적으로、심각해가기시작햇다

◇……◇

강화도의 운양호사건이 잇슨후 대원군(大院君)의 집정이중단되고 고종의 외척민씨(閔氏)의 일족이 드러서서 정권을잡고 잇슬때 문제의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이러나며 대원군이민씨일족에 대한원한과 강화도운양호사건으로 해서 책임을지고 정권에서 물러나게되엇든 원한으로해서 민씨일파와 그수위인 물을 허다히 업시하여 버리는 동시에 서울의 일본공사관을습격하여 다시 대원군의 등장을 보게될때 민씨의 일당은 이를 곳청국에 기별하여 조선의 조정이 위기에잇스니 구원을청한다하니 청국은 조선을자기세력하에서 일흘것가튼 아쉬운생각을가젓든 때이라 청국은 이홍장(李鴻章)이 나서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기회가 이때라고하여 곳 군함과 군대를내어 대원군은 중국으로 붓들어가고 민씨의 정권을 바로잡어 주는 동시에 판제를 중국에 본떠서 만들게하고 외교에는 이홍장이 천거한 독일사람『모린돌프』를 고문으로하고 세관(稅關)은 역시 이홍장이 천거한 영국인『하ー트』란 사람이 마러보게 만들엇다 이것이 임오년 즉지금으로부터 오십팔년전 그해십이월이엇다

◇……◇

이래서 조선은 청국의 내정간섭하에 그속국이 된것에 틀림업다고 보게되엇섯다 이러케되니 공사관의 (賠償)을바든 일본이 그대로 잇슬리만무하다 강경한 담판끄테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 오십만원을 오년년부로 갑기로 하는등 조약을맷고 다시 일본파도 국교를 여전히하기로한다음 그사과의 인사차로 수신사를 보내는데 박영효(朴泳孝)등청년정치가들이 일본으로 건너갓다 이것이 그다음해인 계미(癸未)년이엇다 일행은 동경에서구미의 대사도 만히 맛나보앗지만 일본의 정객들을 만히만나 동아의 대국을 론하고 신제도를 만히보든 가운데 개화의 정신은 더기퍼 그래서 일행은 도라오는길로 일본에서 배워온 새제도를 본바더 처음으로 신문도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도시계발 기타에 볼만한것이 만햇다 물론이들의 활동은꼭일본의세력의 팽창을 의미하는것이라 당시 정권을잡고잇든 민씨일파들을 중심으로한 사대당은물론을 겨하는바 못되엇다 개화당의청년정치가들과의 암투가 날노커갓든것이다 (계속)

## 始發、終端驛을 滿浦驛으로決定

### 廿八日에滿浦、梅輯線全通式

조선쪽 만포선(滿浦線)과 만주쪽 매즙선(梅輯線)철도는 드디어 완성되어 오는이십팔일에는 전통식을 거행하고 오는시월일일부터 일반 여객과화물의 운수영업을 시작하기로 되엇는데 두철도의 련락관계를 보면 이러하다 만포와 즙안(輯安)사이의 리수는 십키로인데 도중 만포철교 중간으로써 국경을 삼고 만포역으로부터 삼키로 오분 되는 육키로오분이 다리에서 즙안현까지는 유키로오분이다 그런데 만주쪽 매즙철도는 조선쪽만포 역을 종단역으로 또는 시발역으로하여 발착한다 즉 신의주역(新義州驛)과 안동역(安東驛)관계와 반대되어잇다 만주국세관출장소도 만포역안에 잇다 그래서 만포선과 매즙선의 서로바귀라는것도 만포역에서하며 세관검사도 모두여기서한다 만주방면으로부터 자기소용 담배를 가저오자면 엽연(葉煙)은 세개까지 지권연(紙卷煙)은 열개이내 싸는담배는 오륙메이내로 허가하며 조선측으로부터 만주로 가지고가는 자기소용담배는 아무상관업다 만주국지폐는 만포역대합실(待合室)매점(賣店)에서 무료로 조선은행지폐와 바꾸어주기로되엇다

### 妻를刺傷코割腹自殺

【全南支社發】완도군청산면도청리 양차재(梁此在)는 그자근마누라인 고흥군금산면오천리 장대심(張大心)(三十)과사소한가정관계로 싸움이 되어 식도로장대심의머리와 가슴등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자기는 복부를찔러 자살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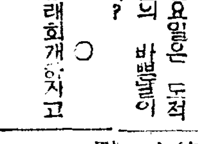
## 志願兵活躍 마음에든든하엿다

### 牛島中將의歸來談

북지산서전선으로부터 이십오일오후에 경성역에내린 우도중장(牛島中將)은 경성역귀빈실에서 조선군담당기자단과만나 보고 다음과가튼 간단한 이야기를하엿다 조선인특별지원병의 태도는 참으로 훌륭하엿다 체격이조코 건강하여서 마음에 매우 든든하엿다 제일회지원병으로서 자각이잇서보이며 전력(戰力)뿐만으로 아니라 장차 각방면으로 만흔 효과를 나타낼줄로 생각한다 즐겁게하면서 히생자 두명이나서 미안하게 되엇다 나는 조금도 구별할 관념도 업서거니와 일반병정과 전연구분할수업슬만큼모두 훌륭하엿다 산서지방에는 대체로 중앙군(中央軍)이 만히 나와스나 공산군도 상당히 유력한부대가 나와서 싸웟다 치안은점점 회복되어가는데 새로 병대가 주둔한 지역이 더욱소탕되어가 출정군사에대하여 조선안에 려분이 후원하여준 성의는 지경으로 감사한다 (사진은돌아오는우도중장과 환영인사들)

### 닙뽕號 『아리카』에

【아리카(치리)二十四日發同盟】이십사일 오전구시이십분『뻬르』의 수도『리마』를 출발한 세계일주기『닙뽕호』는 이십사일 오후한시오십오분(일본시간 이십오일 오전 두시오십분)『아리카』에도착하엿다




일요일은 도적들의 바쁜날이라? ○ 원래회개하자고 만들어진날이 아냐? ○ 폭행한 어느학교학생 세명얼 경찰서에。 ○ 손버릇부터 배우려는 전의학(轉學)인가。

## 어떤어려운 證書·願屆라도 술술쓰게된다

웬만한사람은 계출이나 원서 하나를 못써서 대서인에게 삼십전오십전씩내는 가아하는時代이다 도장쓰는法을 모르면 不便이만하라 이번東京中野區小瀧町二東京出版通信社에서 『代書人으로 미러쓴正しき書き方』『日常百般願屆書文の書き方』의 二冊을 發行하엿다。이책은 一切의證書外書式을 網羅하여 戶籍、寄留、兵事、警察、出版、納稅事項、民事刑事訴訟、人事訴訟手續其他一切의證書願屆申請、申立과書類와書式의 大集錄으로 本書二冊으로代書人의必要업시會社에서 어려운書式이라도쓰게되므로大評判、四六判上製定價一圓二十錢으로 目下特賣中二冊에 一圓二十錢으로 頒布하니希望者는前記東京出版通信社에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 着本拂로送付한다고。

曆

▲九月二十六日(火曜) 陰八月十四日 ▲干支 丙寅 ▲日出 午前六時十三分 ▲日南中 午後零時二十五分 ▲日入 午後六時二十六分 ▲晝間 十二時三分 ▲月出 午後五時四分 ▲月入 午前四時一分 ▲滿潮(仁川) 午前三時四十五分 午後四時十分

廣告


NZ-9F

服薬의絶好期!

效果 本位

換節期가되면 赤痢、腸窒扶斯等의 무서운傳染病이流行하기始作하야 酷暑를치르고身體의 抵抗力이弱해진우리에게 큰威脅을줍니다。그뿐아니라 여름의消化不良症과呼吸器故障가튼職業이 慢性胃腸病、結核等의 重症으로 惡化되기쉬운것도이철인데、그反面에藥效가第一빠른것도 이時期오니 適當한强壯劑로써身體를補强하십시오。

世界的强壯劑ネオトン(NEOTONE)은 人體에絶對必要한 諸種榮養素를含有하야 呼吸器를强化하고 消化機能을旺盛히할뿐아니라 身體의諸器官에活力을賦與하야 虛弱體를恢復하고 病菌의侵入을防止하는等榮養과藥物의兩作用을 理想的으로發揮하므로 最優秀滋養强壯劑로써 醫界諸先生의推奬을밧고잇습니다。

(本劑의信用에對하야는 醫師諸賢께問議해주십시오)

適應症 呼吸器疾患·神經衰弱·貧血症 腺病質·食慾不振·産前産後 榮養障碍·病後恢復期等

包裝 小瓶·中罎·大罎 (全國有名藥房販賣)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支店…大連·米國羅府·臺北·天津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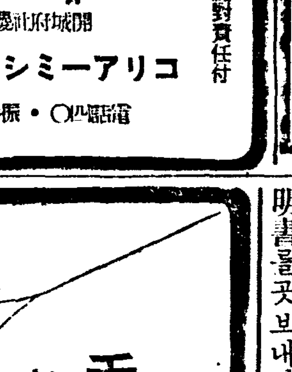
專賣特許 ヤハハンモア 藥用크림

여드름 죽은깨 기미 빼는

파파이酵素와 아루모르드의 藥效가 二一號(强度) 一號(强化된) 一圓五十錢 二圓 四十錢 ヤハハン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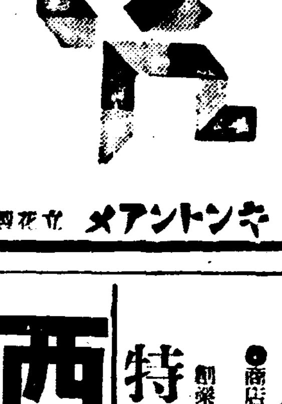
杉田商店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朝鮮最大工場完全品 新發賣 ウラク ミシン 三十年絶對保證 特約店募集



精工舍二十個年絶對責任付 開城府社稷町三一六 ウラクミシン機械製作所 電話四〇〇·振替二三六二一番

日ノ丸 オイイ 치료제



特賣·에기보기·布施市·中西藥枝藥 나아침부터 대인들도 마잇는日ノ丸 의감기시목마가 되여서당당합니다

키톤아메 立花製藥株式會社

外科 皮膚泌尿 性病科 京城鍾路三丁目大東亞藥局會館 同仁醫院 醫學博士 鄭準謨

アミノサン도매 (時勢表進星) 釜山府瀛州町 丸星商會 釜山府大新町 第二工場

本品은理學에基한 製法에두가지專賣 特許權이有함 藥用植物性

毛根에活을넣는비타민F配劑의

カデメ 카데메 ポマード 포마ー드

丹頂벤또라드及各데파ー트에有함 金鶴香水株式會社

苦痛이甚하며 또는身體가 漸漸衰弱하시는분은 明百發百中으로 酒毒을根治식히는大眞熊膽丸說明書를보내여달나고 大阪市十三東之町二丁目二〇 天眞堂藥房으로藥書申込하면 朝鮮文으로印刷한 詳細說明書를곳보내여드립니다

酒毒症 으로

特約店募集 正司憲商店

創業明治廿七年 大阪市谷町一ノ三七 ●商店에만卸賣함 반드시店印으로申込함●

既成洋服特價提供 セルザージ 國防色 國防服 背廣三ツ揃 오ー바 詰衿

# 中部版

## 鷄盜賊逮捕

【金浦】 김포군내 각처에 닭도적사건이 빈발하여 경찰당국에서는 장사꾼의 소위나 안난가하고 비밀리에 조사중이던바 수일전에 김포군양서면송정리(陽西面松亭里) 김태산(金泰山)(二〇)이란자를 붓드러다가 취조한결과 그는군내각처로 도라다니면서 옥외에잇는 닭기장을 잠복하여두엇다가 어느기회에 그곳에가서 닭을훔처다가 파라먹는 닭도적놈이라한다 그자는 김포군고촌면신곡리(高村面新谷里) 김남철(金南哲)방에서 닭여덟마리를 훔친것을비롯하여 그범행이 상당히잇는듯하므로 동서에서는 엄중취조중이라한다

# 土地와建物을快擲
# 有隣保育園도新設
## 開城有隣館長韓喆鎬氏가孤兒를收容養育
## 傳道婦人두분은保姆를自願

【開城】 인술의 천직을갖고 개성도구게에 명성을 떨치는 한철호(韓喆鎬)씨는 작년오월 부내 남산정(南山町)에 오인동지와 협력해서 유린관(有隣館)을 설립한후 가난에 허덕이는 세궁민들을 위해 의료보호사업에 다대한 은혜를베푸럿스며 또는 취학치못하는 일백오십명의무산아동을 수용코 무료로교육을시켜 무산대중은 무론일반부민도 씨의 특지에는 감탄치안는이가 업섯다 그런데 씨는이번에또시가 삼만원에 상당한자기의 소유토지 오천평과 가옥을 사회에 제공하여 유린보육원(有隣保育園)을 설립해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늘미테서 버림바던 기아(棄兒)고아(孤兒)들을 모아다가 따뜻한 정을늘려서 키워주는 개성츙유의 자선사업을하기로 되엇다한다 이소문에 감복한 전도부인 어윤희(魚允姬)씨와 최은경(崔恩卿)양씨는 이곳보육원에 몸을바처 불상한 아기들을 키우는 사회의어머니가되겟다고 쾌히승락하엿다는바 일반의 칭송이놉다 그런데 전기보육원은 부내고려정(高麗町)공설운동장 부근이라하며 고아수용은 오는시월부터 착수하리라한다

## 開城精米業者 小賣業도兼營

【開城】 정조기근으로인해 개성다 사십명 정미업자들은 휴업상태에 빠저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현재남은정조로 쌀을찟코잇는 메에정미업자는 모다소매상을겸하고 종전일반소매상에게는 쌀을도매로 팔지안는다고 한다 따라서 백여명에달하는 이들당업자는 무지그대로 한톨의쌀도 돈을주고라도 사다팔수가 업서 영업존폐문제와 함께 사활문제에 직면해잇다한다 이점에대하여 전기정미업자의 말을드르면 즉 지금까지의정조는 공정가격실시이전에 비싼갑스로 사입한것인데 억압된협정가격의 현시세에 도매를한다면 실로다대한손해를보는것으로 소매를하여서다소손해를 보충하겟다는것이라한다

# 開城蔘業界紛料解決
## 後蔘價等級廢止
## 問題의係員은轉職

【開城】 기보=홍삼전매국관리가 인삼경작인을 구타한 불상사를 동기로해서 개성 삼업조합역원은 평소부터 갈봉당국의 불합리한 점에대하여 네가지 조건을들어 출장소장에게 진정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역원들이 그전말을보고한후 그대책을 협의코저 하는개성삼업조합(開城蔘業組合)임시총회는 지난이십삼일오후세시 개성삼업회사(開城蔘業會社)이층회의실에서개최되엿다 역원대표로 손홍준(孫洪駿)씨가등단-전매당국에 질문한점과 출장소장의 응답한점을다음과가치 상세보고하엿다

一、問=紅蔘選定의初鑑定에잇서서 精選收納한 蔘도退却을식켜再選을 强要하는 反面不精한蔘도 合格시킴은 不合理한處事로 收納係의初鑑定을反對한다

答=事實이 그러타면 初鑑定은廢止해버리겟다

二、問=何等理由업시 收納鑑定順番을 緩慢해서 어느때에 納蔘이 收納될지預測할수업스므로 一般耕作者의 不便과損害는크다 (그리고 이가치 不合理한점에 一般은 疑惑한다

答 步合을 마치기위해 그러타고본다 그以上 무슨潛在事實이 잇다면 究明善處하겟다

問 今年은 旱魃이 深刻해서 一般耕作者는 水蔘의收穫이 減될것을 憂慮하야 當局에 採掘期日을 延期햇스나 旣定方針이라고 不應햇음에 不拘하고 한 地主에게는 大部分採掘期가 뒤로 물너저잇다 偶然한 事實이라해도 利害關係를가진 組合員은 그러케 볼수업다

答 警戒해서 翌日 不合理한점이 업게할決心이다

問 一部收納係員이 耕作者 金賢院을 毆打한것은 이번에 한한 問題가아니고 平素에도 言辭行動이 不遜한데서 惹起된것이니 現職에서 轉勤케해달라

答 收納係勤務는 안토록 轉勤시키겟스며 다시 本局과連絡해서 조처하겟다

즉 이상과가튼 역원손씨의 보고가끗나자 다음 조합장 공성학(孔聖學)씨로부터는 결국이가튼 폐해가 생김은 후삼(後蔘)보다 퇴각(退却)갑을 삼십원(六十六)더 밧는데 잇스니 후삼가격의 등급폐지를 해버리자는근본정신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것이라고 성명하고 이점에대한 가부를무르니 일동은 만장일치로 거수가결하고 산회케된바 적년일은이 싸혓든 개성삼업계는 숙청되리라한다

## 臨迫한秋夕明節에도
# 閑散한仁川商街
## 地方客의減少가原因

【仁川】 추석도아프로 이틀이격부간 하엿스나 인천부내의상가는 의연한산하여 포목점 잡화점등은 례년에비하면 훨씬이 적연하다는형편이다 그원인은 인천항의 각상인은 부내의소비자보다 지방의 소비자가더만흔터인데 금년은각지의 한해로말미암아 인천에 로오는 인천연안의 손님이업고 따라서 전기판개로 소비절약이 충심이되어 대부분이 새것으로 명절을 마지하는 여유가 업스므로 일년을 통하야 추석을한대목보든지고잇든 포목상들은 비명을부른다 이대로계속된다면 수지줄이 맛지안허 용의판개에도 큰영향을줄것으로 예측된다하며 작년동기와 비교하면 포목상은 약팔할이상이나 거래가 감소되엇다고하며 도매상들은 칠할이부의 감소를보이엿다한다

## 南京城工學院 十月一日부터開校

【永登浦】 금번영등포에 남경성공학원(南京城工學院)이라는 공업전수학교가 생기게되엇다 당

## 協同藝術座公演에
# 本報讀者는優待
## 本社永登浦支局奉仕

【永登浦】 기보=본보영등포지국에서는 독자위안으로 오는이십구 삼십양일간 협동예술좌(協同藝術座)를 초청해다가 당지극장 연예관(演藝館)에서 상연하기로 되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동지도 이미 진작하는바와 가치 협동예술좌는 동양지광사(東洋之光社)전속으로 조선연극계에 잇서가장 정예분자들을 총망라하야조직된 권위잇는 극단이다 금번에상연할각본은 수일전부민관에서 수만관중을 열광시킨불란서극단의원로 『모리에ー르』원작의 『멘드는男便』 파백인(白人)의 동양정라를주제로한 『동풍』(東風)등으로 그현란한 무대와 서정적인연기는 벌써부터 비상한 인기를 끌고잇다 그리고당야의입장료는 개상계하의 구별이업시 본보독자에한하여는 이십전식의 예우를하기로되엇다

## 製叺原料購入資金
# 百圓을自進寄附
## 竹山朴淵雄氏의美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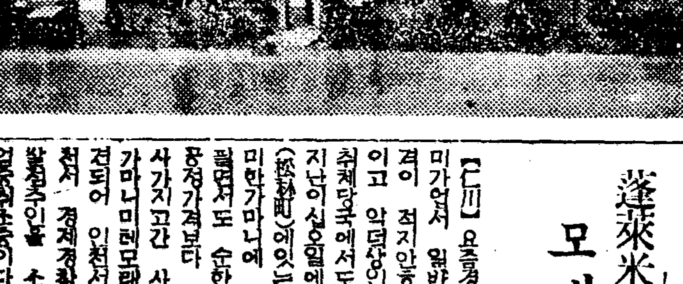
【竹山】 한재에따하여 당국의구제사업은물론 각방면으로 대책을 수립하는이때 일부독지가가 안전히 생활하여가도록한 아름다운사실이 잇다 경기도안성군일죽면장원리(安城郡一竹面長院里)거주하는 박연웅(朴淵雄)(三七)씨는 자기동리 이재농가 이십여호가 생도가 막연하여 살곳을 차저 유리하게된 참상을 보고 자기도 넉넉지못한 생활임에도불구하고 하로는이십여호농가를모아 노코 생도를지시하는데 자기가 현금일백원을 내노코 가마니짜는원료인짚을 사드려서 분배하야 가마니를 팔어생활하게하는데 대 박씨는 자기일도 제폐하고 각지에다니며 짚을사드려서 원료가 핍절되지안케하며 밤과낫으로 가마니짜는데 순회하며장려지도하야 이십여호에 십일간 생산품액이 일백오십여원씩이라 하며 전기이십호의 계를설립케하야 지금을 유지하도록하고 명년농사까지 전여 으르하야 래년을경과하고 차후에해는시 부업으로이사업을계속 하기로하엿다

## 貸付限度增大

【金浦】 김포금융조합에서는 금

# 昇格된興東學校
# 記念式과運動會
## 廿三日同校庭에서擧行

【永登浦】 시흥군신동면 잠실리(始興郡新東面蠶室里)에잇는 사립흥동학교(興東學校)가 심상소학교로 승격된것은 기보한바어니와 금번에개교기념식과 운동회를 지난이십삼일 동교교정에서 성대히거행하엿다 래빈으로서 궁야(宮野)시흥군수를 위시하여 신해(新海)영등포경찰서장 김민식(金敏植)부회의원등 관계각방면의 유지수백명이 참렬하여 엄숙하게 개교기념식을 거행하고 계속하여 오후부터는운동회를 거행하엿다 동교는 지금으로부터 이십일년전 즉대정 팔년가을에 당지청년유지멤멤분의노력으로 토막을짓고 동리아동 삼사십명을 모아가지고 국어、산술、한글、언문등을 야학으로가르처오든것이 시초엿섯다 그이듬해 현신동면장이영섭(李英燮)씨의노력으로 새로히학교를지어서 강습소로 인가를밧고 다시대정십사년십월에 사년제학교로승격、그후에 부내독지가 김교성(金敎成)씨의 원조를바더 교사를신축하는동시 이래신동면유일의원위잇는 사립학교로 적지아흔공헌을남기어오다가 지난팔월이십팔일부로 육학년제 사립소학교로 승격을보게된것이라한다



(사진은 승격된흥동학교)

# 農村振興會에
# 防犯組를結成

【楊州】 양주경찰서에서는 가을철에들어 남조선지방의 이재민 또는기타 부랑자의횡행이 빈번함에따라 범죄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도전(稻田)신임서장은 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군내사백삼십삼개소의 농촌진흥회를 총동원하여 방범조(防犯組)를 조직하여 경민일체(警民一體)가되어 만전을기하기로하엿다 더욱 선전삐라 수만매를각가정에 산포하여 일반의주의를 환기하엿다

宣傳삐라

一、모든재화가 부주의에서생기는것이니 일키전에조심하시요

一、문은 잠근뒤에도 다시한번 돌아보시요

一、해진뒤에는 삼인이상 동행하시요

一、밤길갈때는 방어할만한기구를 준비해가시시요

一、도적마진때는 신속히신고하시요

## 水原私立初等學校
# 聯合運動會盛況
## 廿二日華城學院에서

【水原】 씩씩하게 자라나는 일천사백여명의 어린이들이 날마다 손꼽아기다리던 수원사립초등학교 연합 추계대운동회를 지난이십이일 상오구시에 화성학원(華城學院)운동장에서 개막한바 맑은하늘아래에는 오색의만국기와각학교교기가 날리워잇고 장내장외에는 운집한 학부형과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룬중에 서금년당번교인 삼일학교(三一學校)장 김병호(金炳浩)씨가개회를 선언하고 식순을따라 궁성요배 국기게양 황국신민서사제송 묵도 의미심장한 식사가 잇슨후 총후국민된 어린이들의 진기한 경기는 오전오후이부의 오십여 종목을 원만 무사히 지행하야 만세삼창으로 폐식하니 때는하오네시 삼십분경이엇다

## 本社水原支局後援
# 織湖少年蹴球大會

【水原】 제이세국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도하단체의후원을위하여 수원운동구락부주최와 본사수원지국후원의 제일회 기호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한바 수원에잇서서 어린이를위한 축구대회는 처음인만큼 일반의 기대도크고 어린이들의 대회에 대한 모든준비와 맹렬한연습이 각지에서 대단한바 참으로 총후국민된 우리로서는 경하하는 바이니 일반축구팬은 손곱아기다리는바 대회에대한 모든규정은아래와갓다

第一回織湖少年蹴球大會

時日 十月一日(日)午前九時

場所 水原公設運動場

申込場所 朝鮮日報水原支局 又 水原水鄕堂(藥店)

申込資格 年齡十七歲로 身長五尺二寸以下에限함

申込期日 九月三十日下午四時

查定日 九月三十日下午五時

查定場所 華城學院

申込金 每팀二圓

其他詳細는水原運動俱樂部에問議

## 面議選擧違反無罪

【寶城】 보성군내서면에서 발생되엇든 면협의원선거위반사건에 대하여는 미리본보에 누보하엿거니와 그후소식에의하면 장흥(長興)법원지청에서 제일심공판 하엿다는데 그결과 무죄로판결이 내려 송국되엿든 일제히무죄석방되엿다 고한다

## 蓬萊米를韓白米로
# 모래를석거小賣
## 仁川에不正米商檢擧

【仁川】 요즘경향을 물론하고 판미가업서 일반으로서의 밥먹는 걱정이 적지안흔며 이를기화로 악덕상인이 나날이 늘어서 취체당국에서도 큰두통꺼리인데 지난이십오일에는 인천부송림정(松林町)에잇는 모미곡상에서 미한가마니에 이십일원오십전에 팔면서도 순한백미(韓白米)라고 공정가격보다 일원이나 더밧고 사가지고간 사람이쌀을 퍼서 가마니미테 모래를넣어서 팔엇것 견되어 인천서에 고발하여 인천서 경제경찰에서는 즉시 그쌀장수인을 소환하여다가 엄중취조중이다 또 용강정(龍岡町)모판점에서는 한백미라고속이고 팔앗이 전부가 봉래미를 판사실이 판명되어 경제경찰에서는 부내각백미소매점을 엄제히 취체하여 상인으로서 정직하게 쌀을팔지안코 소비자를 속이고 공정가격이상으로 밧는 쌀장은 엄중한 처벌을나리리라 한다

## 報國貯蓄座談會

【江陵】 강릉읍에서는 지난이십일일오후八시부터 동읍내공회당에 읍내각애국반장들을 초청하여 보국저축휘행방법에관한것과 및 경농산사업조영리문제등에관한 좌담회를개최하엿다

## 烏山神明神祠
# 廿六日에大祭

【烏山】 오산에서는 이십육일오전열시 오산신명신사(烏山神明神祠)추기대제를 거행하기로 하엿는데 각관공서는 물론이요 일반은 각각매호에 헌공(獻供)할것과 당일은 정각안에참석하기를바라다고한다

## 擔保貸付에는
# 六千圓까지
## 松都金組의定款改正

【開城】 개성도시금융조합의 유일한기관인 송도금융조합(松都金融組合)에서는 지난이십삼일오후二시 고려청년회관(高麗靑年會館)강당에서 삼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집한가운데 조합장 공진태(孔鎭泰)씨 사회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엿다 총회의 중요한 안건은 정관변경안이엿는바 첫재는 작년에 새로 개성부구역으로 편입된네정(町)까지도 포함하여 금전대부등 일반업무를 집행하자는 것과 둘째는 담보대부(擔保貸付)에는 종내삼천원까지를 육천원까지 대부하기로 정관을변경하자는것이엇다 일동은 만장일치로 가결하엿는바 시국하에 곤난당하고잇는 중소상인에게 기쁜소식이라안할수업다 돈닷을 드러보면 종래신용대부로 일천원까지 하든것을 삼배씩까지 하든것을 이배씩으로 담보대부는 이천원이되엿다한다

## 거스름돈詐欺
# 仁川에서再現

【仁川】 이틀저한 추석을압두고 인천부내에 요즈거스름돈 사기한이 횡행하여인천서 사범계에서는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다 지난이십일밤 여덟시 오십분경에는 부내 도산정(桃山町)이십일번지 잡화상 김기호(金基浩)(三二)의상점에 사나히 하나가와서 양말한켤레를 사십전에 흥정하고 십원짜리이니 거스름돈을달라고 우물쭈물 하다가 전기김의 안해서씨(徐氏)가 구원육십전을 금고에서 내주자 양복바지에서 망목동에 부친상표(商標)를 뚤뚤마러서 전기서의 손에쥐어주고는 구원육십전만가지고 어데로인지 행방을감추엇다 전기상점에서도 십원짜리인줄로만알고나중에 보즉조희임으로 즉시인천서에 고발하엿스므로 방금범인을수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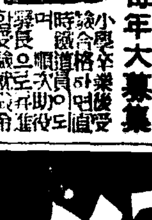
一、소일코의약간긔치지말고 돈지갑가튼것은 반드시 끈을달으시요

## 龍頭金組臨時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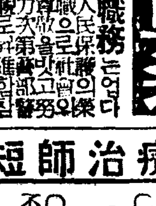
【楊平】 용두금융조합(龍頭金融組合)에서는 지난구월이십일오전열한시부터 용두공회당에서 임시총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일부변경과 기타 사항을 부의하엿다는데 이번 정관변경은 주로 대부금한도 확장에 대하야 종래 신용대부금 최고한도 이백원을 삼백원으로하고 담보천원을 이천원으로 하기로하여 곳실시하기로하엿다한다


먼저就職 조흔講義錄으로工夫하야 하로速히 立身成功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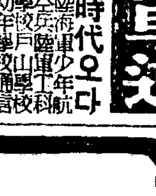
鐵道員なと早道 全國各鐵道에서每年大募集 日本鐵道教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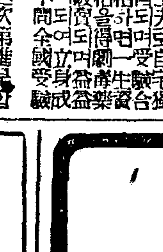
巡査なと早道 巡査만큼愉快한職務는업다 日本警務教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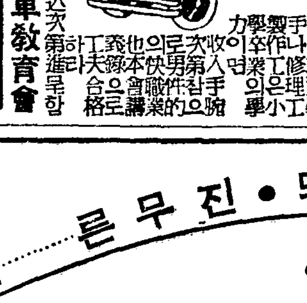
陸海軍人なと早道 今也陸海軍人時代오다 日本軍事教育會



藥種商なと早道 藥劑師와가튼藥種商 日本藥種商教育會



運轉手なと早道 나도 되고십흔 運轉手 日本自動車教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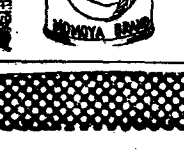
中學講義 어데보다도卒業이速하다 어데보다도會費가싸다 어데보다도 알기쉽다 自宅獨習겨우一年卒業 見本과規則無代進呈 東京市牛込區台町 大日本通信中學校

專賣特許 自宅에서되는일 감見本無代進呈 マルフ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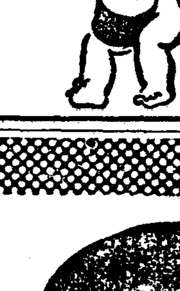
カゴメケチャップ 케챱 最上の品質・最大の賣行

療治師短期養成 鍼灸 全國無試驗開業 奧村療法朝鮮學院

桃屋의桃 罐詰 날것보다맛잇는 白桃、黃桃 東京 桃屋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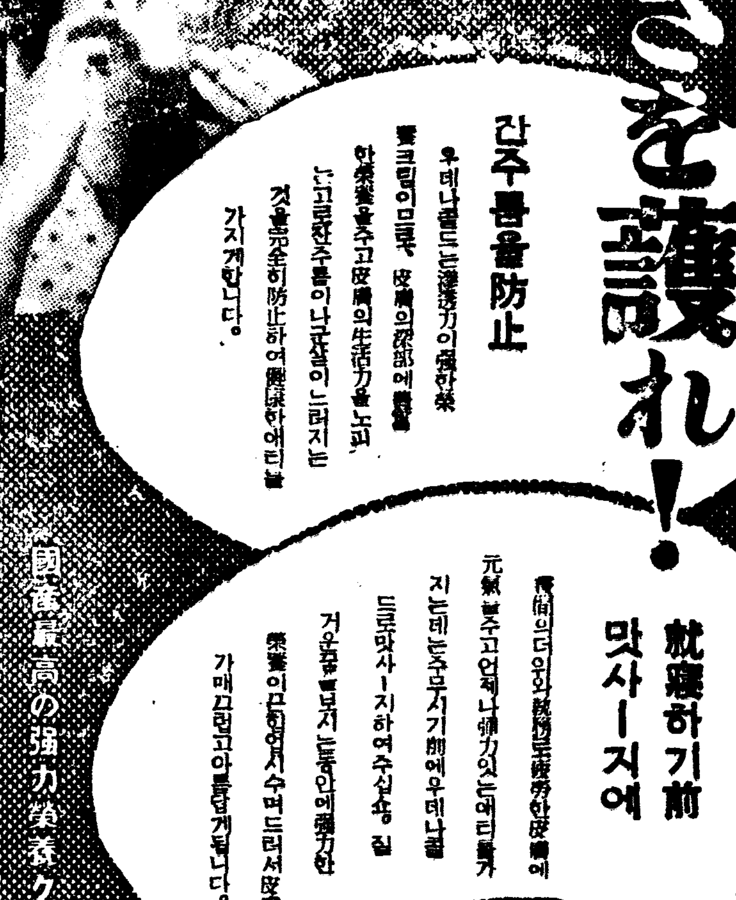
땀띠・진무른데 シッカロール 싯카로ー루 和光堂



日英米佛特許 パイロット萬年筆 ▼非常時下唯一의透明色軸 ¥2.00以上

本社甕島支局 電本②三八八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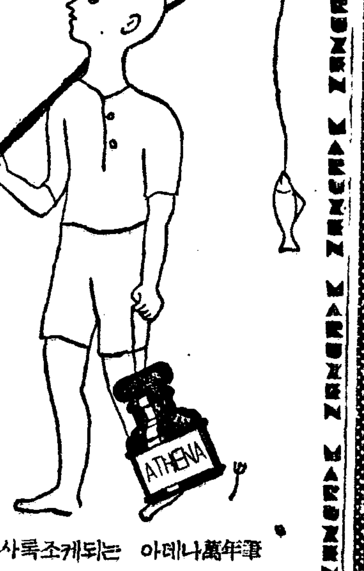
若さを護れ! ウテナコールドクリーム 우데나콜드크림



잔주름을防止 / 就寢하기前 맛사ー지에 / 濃化粧下에 / 粉지우는데

感嘆!感嘆! 정말頭痛에썩조흔 ノーシン 노ー신 이다

아데로써서 오늘答案에도 甲・甲・甲의收穫!



日本의잉크를代表하는 丸善アテナインキ 아데나잉크 2온스入 30전 쓰면쓸사록조케되는 아데나萬年筆 MARUZEN

沐浴한 뒤爽凉味는 미쓰와로倍加 깨끗이씻고 淨하게하여 아질아질하게 풍기는香氣 미쓰와만이 第一流의石鹼

石鹼의最高標準品 ◎ミツワ石鹼 미쓰와 本舖 東京日本橋・兩國 ◎丸見屋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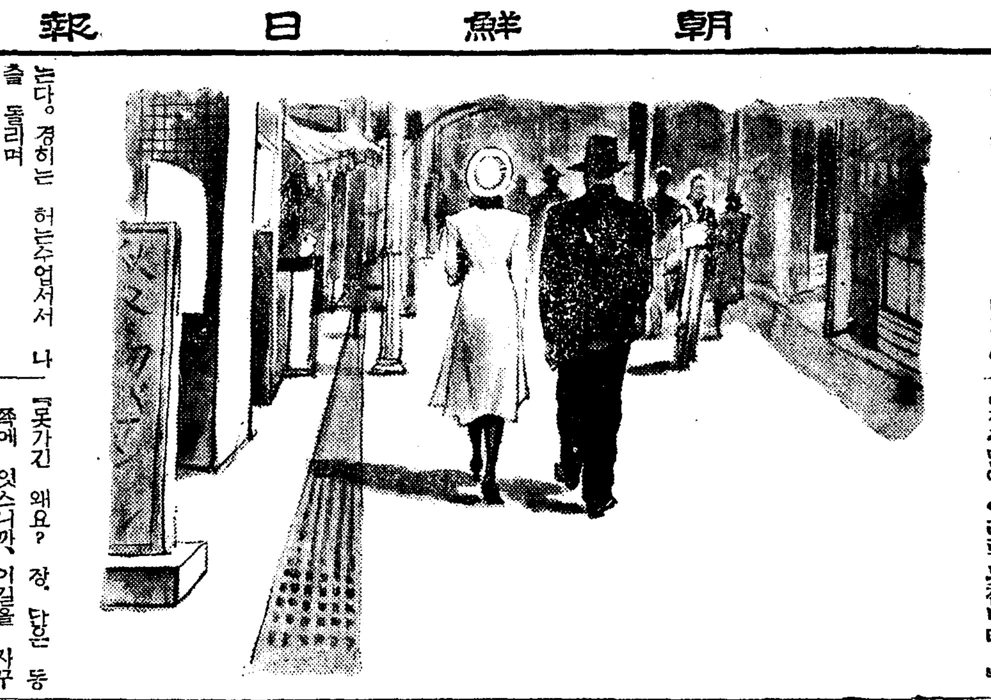
**長篇小說**

# 사랑의 水族館 【47】

金南天 作 鄭玄雄 畵

## 戀情·友情 (六)

『물엔 들어 갓섯스니까 이번엔 불일는지도 모르지오.』
하고 말하면서도 경히는 남지에 대해서 실례의 짓을하고 잇다고생각지안니하엿다.
『수영선수의 경험은 잇서도 소방수의이력은 미처 못가젓는데요.』
하고 망호도 버룩버룩 우섯다
『그럼 인제 명령대로 허세요. 자아 나가십시다.』
하고 경히는 일어서며 식탁우에 노힌 전표를들엇다. 망호는따라 일어서면서,
『그건 안됩니다. 전 표는절 주십시요.』
하고 바른손을 내민다.
『펜찬허요. 우린 서양사람이 아니니까요.』
하고 경히는 전표를 만손에 옮겨 쥔다.
『안됩니다.』
하고 망호는 지리를떠나지 안는다。 경히는 허는수업서서 나출 돌리며
『그럼은요。 이것만은 약속하기전이니까 올리기루 합니다。 그러나 인제부터는 꼭 제의 시간입니다?』
하고 따지드시 처다본다。 망호는 전표를 바다쥐고 그저 우서 보여즐뿐이엇다。
그들은 거리에 나왓다。
—어디로 갈것인가?—
인제부터는 제의 시간이라고 선언은 하엿스되 어디로 갈려는 예정이 경히의 머리속에 서잇는것은 아니엇다。점심이나 가치 먹겟다는 생각만이 예정표에 들어잇다。지금이 열한시 우유차와 사과한알을 먹은 경히는 점심도 먹을 시간이지만 망호에겐 점심시간이 아니다。그러나 안내를 당당한 이상 길우에 서서 오래동안 주저거릴수는 업섯다。
경히는 제법 생각이 서잇기나 한듯이
『이리로 가서요!』
하고 삼정목쪽을 가리첫다。두사람은 나란이 서서 진고개를 넘어 간다。벌써 만흔 사람이 오고 가고 하엿다。이 만흔사람의 가운데를 헤치드시 걸어가며 두사람은 각각 제의 동반지에 대해서 만족과 자긍을 느꼇다。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것일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향락하면서 망호는 따라간다。
경히는 음은 아무튼 생각도 업시 는어 보앗스나 이길을 그대로 가면 장충단에 나갈수 잇슬것을 생각하엿다。삼청동서 예까지 것고 다시 장충단까지 것기엔『하허힐』로서 무리할필요도 실혓스나 그러나 무엇을 타고 십지는 안헛다. 습사이를 거닐며 이야기하면 피곤가는건 다 사라저 업서지리라 생각는것이다.
그러나 본정거리를 다 나가서 꾸부정하게 길이 남산쪽으로 굽은데까지 와선 망호가 것던 거름을 딱 멈추엇다.
『어디로 가는겁니까?』
하고 그는 뭇는다.
『왜요? 그건 내 마음에 달렷지요.』
하고 경히는 우서 보인다.
『아닙니다, 인제는 더 갈수가 업는 겁니다.』
『길이 잇는데 못가요?』
『못갑니다.』
망호의 대답은 단호하다.
『대체 어디로 갈려는 겝니까?』
하고 뭇는 말에 경히는,
『장충단에요.』
하고 대답지 안흘수는업섯다.
『장충단엔 이리로 못갑니다.』
『못가긴 왜요? 장충단은 동쪽에 잇스니까, 이길을 자꾸 동으로 동으로 가면 될거안야요?』
망호는 이말을 듯고 싱글싱글 우섯다.
『동으로 동으로 가면 인도가 나오는건 콜럼부스의 발명엿니다. 우린 콜럼부스나 말코포ー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말이 무슨 소린인지 경히는 미처 알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신사와 숙녀는 들어갈수업는 구역입니다.』
하고 설명하여서 비로소 경히는 비로소 놀래듯이 나올 눈키면.
『네에 여기가 거긴가요?』
하고 놀으면서 발끗치를 돌린다.
『인전 내가 안내하지요.』
하고 망호는 우스면서.
『이리로 갑시다!』
하고 좁은골을 가르킨다.
『안돼요! 실혀요! 이길을 도루 진고개로 가서요!』
하고 아직도 경히는 권리를 물래 주지는 안흘려한다.
『인제 또 서으로 서으로 가실텝니까? 루네·크렐의 유령처럼!』
하고 망호는 놀려본다.
『놀리면 안갈테에요!』
하고 경히는 오둑서서 망호를 흘겨본다.
『네 놀리지 안치요. 그러나, 인생의 안내자는 역시 남자인건 확실하지요?』
하고 망호는 여전히 웃고 잇다.



자세히뭇고보니 토끼도업고 여우도업고 노루도업고 더구나 늑대산도아지는 옛날이야기에나잇는 모양이다。그뿐아니라 꿩이니 메추래기니하는것도 업스며 날즘생이라고는 까마귀와참새뿐이라는것이다。그러나 나는악가수리를 보앗다。창경원에서본 해취(海鷲)나구취(狗鷲)종류가태다。아닌게아니라 이출은섬에 즘생이잇대야 사람에게 백여나지못할께고 새로 말하드래도 상당히 비상력이강한놈 이래요 이섬에를 와볼게다。겸하야 산에는수목이적고 잡조에 더핀섬이니 나처럼 거처할테가업서

# 〃외수박은上陸拒絶 麥酒한병에一圓也〃

## 『아메바』亦痢로堅固한防疫陣

文·寫·畵……金熊超

하로도 못배겨날게다。
『그럼이섬에 금이나니?』
『금은안나지만 철은납니다』
눈밝은 사람이 벌서 예까지와서 먼저두군데나 칠을발라노앗다。방금 작업은하지안코잇스나 어떤섬인가는 외롱쇠덩어리라고한다。
나는중로에서 땀에흠빽저즌속옷을버서 나무가지에 거러말릿다。날이어찌나 더운지 어덕아래로내려다보이는 냇가의하ー얀모래가 천일염전(天日鹽田)의소금가치생각이든다。그러컨만 후산도의종족들은한선(汗腺)이업는지 이아이들도 보중보중해서 코등에이술도 안안는다。
『너이들배고프겟구나?』
『아니에요。우리는 점심안먹습니다』
『왜?』
『안먹구두 견디니까요』
의식적인 이식주의자(二食主義者)들이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풀비테안차 쉬다가 진짬로도라왓다。
『여기서 뭐나 좀먹자』
나는 마을에서 가장큰 가게아페이르러 두아이를 안으로끄러드렷다。버려노흔상품의수량이래야서울조그만 야싯장가게의폭도안된다。여기서 두소년에게 변변치안흔 과자를대접하고 나는 맥주한잔을 위선바쁘게 드리켜서 해갈을했다。
어름이 업는곳이라 미적지근해서 장국을마시는것가트나 집찔한 이섬의냉수보다는 낫다。그뿐더러 맥주를 예리(曳里)의 여관이나요리점에서 먹는것에비하면 노자돈이 부상을덜당한다 여기서는 육십전, 그러나 저기서는 일원이니 사십전의 이를 보는셈이아닌가? 더군다나 예리에서는 사이다한병에오십전 파인애풀(罐詰)통에 일금일원삼십전을 바드니 말해무엇하리요。게다가 이섬에는 요즈음한창인 참외수박을 볼수가업다。『아메바이질』이 유행한다고 해서방역(防疫)으로 생벼락을 마젓슬뿐아니라。외지에서 오 외수박도 상륙을거절당하고 되도라가는판이라 계절의 선선한 식료품은 이섬에서 차저볼길이업다。
『너이는 몃형제나되니』
나는두소년을 번가라보며 무럿다。
『삼남매에요』
한소년이 먼저 이러케말하니 한소년도 구관조(九官鳥)처럼그뒤를따라
『저는 형님하고 저하고에요』
『그럼 너이네ー상은멧살이냐』
『아니여요 이모ー도에요』
『너달맛스면 퍽귀엽겟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코스등에손이간다 한살만이라도 조타손위누라면 내가이가게에서 가장귀한것을사서 선사를 올리려만은
『저의 니ー상은수물한살에요』
『그래? 널보매 어른되겟구나』
이소년의 대답에는 힘써존경의뜻을표했다
두소년은 지못 겸손한 태도를취하느라고 과자를 시원스럽게 집어올리지안는다
『자 이건 가지고 가서 동생들하고 먹어라 오늘 나때문에수고해서 미안하다』
나는 남은과자에다 얼마치를 더해 신문지한장에 싸주엇다 값싼과자라 부피만커서 적은못다리만하다 두소년은 잠시수맛수맛하엿스나 한소년이 권에못이기는듯이 대표로나서서 밧는다 한편 제면적고 한편고마우나허식의인사절차를모르는 순진한그들이라 절한번 꿈벅하고는 잘가라는 말도업시 내뺀다。
나는 가게주인에게 셈을치르고 길로나섯다。마을복판으로사러지는 두소년의 뒷모양을살피니 그러틋얌전한 소년들은 몽평한분배문제로 의논이 낫는지 신문에싼 뭉텡이를 서로뺏틀고 풀목어구에 멈추어서잇다。
『잘가거라!』
내가 한손을 처들고 이러케 외치니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자마자 이번에는 아주 빽손이를 친다。
이가 바로 이우제 객주집이며 술집이며한게 하나잇다。이나마도 이마을에서는 단하나뿐인모양인데 참말로 살풍경이다。원만하면 이마을에서 하르밤 묵으려햇스나 역시 복적복적하는데가 그리워 예리로발길을 돌렷다 웬일인지 두개골(頭蓋骨)만남은 그노파의집이버집가를 생각이든다。

# 어디로가나?文藝峰

## 朝映과의契約도於焉滿期

◇…문예봉(文藝峰)은 어디로? 조선영화계의『퀸』문예봉의 거추에 대하여 자못세평이 시끄러워젓다 작년 성봉영화(聖峰映畵)분규사건때한참 문양의행방이 주목의초점이되엇고 이분규로 말미아마 문양은 단연 영화계를 떠나 충실한 가정의안해와 어머니가 된다고까지 선명햇섯다。
◇…그러나 그후 문양은백팔십도의 전향을하여 조선서는 처음으로 조영(朝映)의전속으로 게다가 최고의월급과 일년간의 계약이라는 절대조건을 매저 또한 세상을 놀라게하엿다 그후 문양은 이규환(李圭煥)씨의『새출발』에 주연하여『나그네』이후의 이감독과의『콤비』에 세상의기대는 여간 큰것이 아니엇다 그러든중『새출발』은 아작봉절을보기전 조영과 문양의게약기한은 끈허지고말엇다。
◇…그러면 문예봉은 어디로가느냐가 다시 세상의주목을 끌지 안흘수업게되엇다 문양이 처녀십칠세로 고인된 나운규(羅雲奎)씨와『임자업는 나루배』에주연한이래 팔년동안 양의존재는 드디어 동양적인人기를 차지하게되엇다 그러나 조영으로서 재계약의적극적태도를 가지게못되고 한때는 고려(高麗)영화의 전속설이 돌아다녓스나 이역유야무야중에 파뭇치고 그러타고문양으로서 완전히 은막과 손을 끈치안는이상 영화여우난이 심한조선에 잇서서 문예봉의거취가 관심의초점이 되지안흘수업다。
과연 문양은 어디서 어떠케『새출발』을시작할것인가?

(사진은 문예봉)

# 協同藝術座 地方巡演

동양지광사(東洋之光社)전속극단 협동예술좌(協同藝術座)에서는 기보와가치 이십오륙일이틀동안 시내부민관(府民館)에서대성황속에공연을 열엇거니와 뒤를이어꼿 지방순연을떠나리라는데 각지일정은 대개아래와갓다
仁川(二十七、八日)永登浦(二十九、三十日)咸興(十月二、三日)興南(四日)城津(五、六日) 吉州(七日)淸津(八、九日) 羅南(十日) 牧丹江(十二、十三日) 延吉(十五日)圖們(十六、七日) 龍井(十八、九日)端川(二十一、二日)前津(二十三日) 高原(二十四日)長箭(二十五日)元山(二十六、七日)鐵原(二十八日)

# 〃阿娘〃處女公演 大邱에서開幕

황철(黃澈)차홍녀(車紅女)등극단의 총아들망라한 신극단아랑(阿娘)은 이윽고 그처녀공연을 음력추석 즉이십칠일을 기해서 대구(大邱)대구극장에서 열리라한다 무대장치에는 원우전(元雨田)각본부에는 임선규(任仙圭)배우로는 서일성(徐一星) 맹만식(孟萬植) 김선초(金仙草)등 극계의 베테란이 일당에모인만치 자못호화한 무대를나타내리라고 기대되고잇다(사진은阿娘일당)

# 라디오

## 二十五日(月)

▲午後六時 어린이科學『朝鮮의 候鳥』 李德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鄭松江詩歌에對하여』 趙潤濟
▲同八時 社會見學(錄音)—開城人蔘採取實況—
▲同八時三〇分 新民謠 一、鄕愁歌 二、山念佛 三、노들江邊 四、朴淵瀑布 五、베틀歌 六、사발歌 林明月 短篇崔鶴成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 金昌龍 鼓手丁元燮
▲同九時 라디오小說(平壤)『가을과 노래』韓南哲作—南海燕
▲同九時三〇分 時局展望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二) 宋今璇

### 第一放送

▲午後六時(大)對話▲同六時二五分(東)講演▲午後八時(東)講談▲同八時四〇分(東)漫才

### 藝林片信

▲『샤ー리ー·템플』의 신작『레디ー·〃렛〃』은『월라ー·랭그』감독으로 방금촬영진행중인데『이십세기·폭스』에서는 이번 구월하순에 봉절할예정이라고


# 女性홀몬

**女性홀몬은……**

…女性의性機能을 發揮시킬뿐아니라 女性美의『심분』인 아름다운姿態、肉体的으로 또는精神的으로柔順한 特徵을나타나게합니다。從來 홀몬이라면 곧性에만關聯시켜서 생각해왓으나 이것은이外에 全身의機能을調和統一시키며 健康을增進시키는 것입니다。

**萬一女性에게**

卵胞『홀몬』이 缺乏된다면 爲先 口味가 없어저서 食慾이 減退하고 恒常 疲勞를느기며 몸이 노곤하고 얼골에잔주름이늘고 얼골이 바서지며 生殖機能이 減退되는故로 貴한子孫을 보지못하게될뿐아니라 出産한분은 젓이잘나오지않고 血色이좋지못해지며 히스테리에 걸녀서 늘 憂鬱하며 頭痛、腰痛과 月經過多、月經寡少等의月經不順을隨伴합니다。이리하야 全身的으로 健康을極度로障害받게됩니다。

**諸臟器를賦活**

女性홀몬의缺乏으로 因해서 생긴諸症勢에對하야 『오바호르몬』은 가장優秀한 效果를 보이고있읍니다。
即 身体의組織과臟器에 强烈한 賦活作用을이르켜 身体各部의調和統一을도읍고 沈滯된新陳代謝機能을 높혀 健康을增進시킴니다。

錠劑(百單位) 五〇錠(一圓五〇) 一〇〇錠(二圓七〇)
(五百單位) 二〇錠(一圓六五) 五〇錠(三圓七五) 一〇〇錠(七圓二〇) 二〇〇錠(一三圓)
粉末(一瓦=千單位) 一〇瓦 二五瓦 一〇〇瓦 五〇〇瓦
注射液 百 五百 千 一萬 五萬
二五萬의各種單位가잇고 全朝鮮藥房에서販賣함

#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르몬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製造元 川崎市大宮町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武田發賣品

39(1)361



# レートコールドクレーム
레ー도ー코ー루도구리ー무

根本的으로 아름다운살결로

**洗顔에** 털구멍에서 먼지나 분때를 없애고 아름다운살결을만들수있읍니다

**榮養에** 살결이潤態흐르고 아름다웁게되며 化粧을굉장히잘받습니다

**脂肪에** 지금까지의專門家들어 困難을밧던 개거름도 레ー도코ー루도로는 絶對安心되며아름다웁고新鮮한살결이됩니다

秋夕佳節特別大公演
靑春座 華船座 合同第三週
二十七日밤부터

『秋風』三幕五場
宋影 作

秋夕달은밝다 豊年의노래소리도 黃金물결을뒤흔든다
그러나可憐한少婦淑姬는富豪의妾이되어서예전에목숨을밧치고시랑하던젊은사나이를『족하사위』라고불르는지안으면안되게됫다 흙내가나는鄕土에서해못보는工場으로구을너다니면서겨우홈켜쥔幸福을누가빼서갓나?이야말로눈물과한숨과그리고애타는情緖가가로세도얼크러진한편의敍事詩다! 보시라!秋夕의내여놋는東劇의絕對名劇을!!

『뛰는놈에나는놈』一幕
殷鑑 出作

東洋劇場 電話光 二一四五



黃金座 日活映畵 二十日ヨリ 廿六日マデ

| | | | |
|---|---|---|---|
| 假面の劍客 | 10•30 | 2•20 | •15 |
| 花園の天使 | 11•45 | 3•35 | •25 |
| ニュース | 12•40 | 4•30 | 1•30 |
| 結婚スクラム | 12•50 | 4•40 | •45 |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松竹映畫 9月25日より上映時間表

| | | | | |
|---|---|---|---|---|
| ニュース・漫畫 四人の復讐豫告篇 | 10•00 | 1•00 | 3•56 | 7•00 |
| 純情二重奏(前篇) | 10•41 | 1•41 | 4•37 | 7•50 |
| 純情二重奏(後篇) | 11•52 | 2•52 | 5•48 | 9•02 |

次週上映『踊子ホノルル』『新しき家族』
明治座



9月25日より上映時間表

| | | | |
|---|---|---|---|
| いざよひ峠 | 11•00 | 2•55 | 7•00 |
| ニュース | 11•58 | 3•53 | 7•58 |
| 追擊三人組 | 12•19 | 4•14 | 8•19 |
| 可愛いいマカちやん | 1•29 | 5•24 | 9•29 |

大陸劇場